

# 現代國語의 1·2 인칭 표현에 대하여

이필영\*

## I. 서론

1·2인칭 표현이란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는 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개 인칭대명사들에 의해 표시되거나, 지시대상의 직위, 이름, 신분관계 등으로써 표시된다.<sup>1)</sup> 또한 때로는 지시사들을 통해서 표시되는 수도 있다.

틈인칭대명사들은 지시대상을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만 담화상황 속에서 지시대상을 話示(deixis) 함으로써 代用表現할 떄이다. 이에 반하여 지시대상의 직위, 이름, 신분관계 등으로써 지시대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직접표현’이라고 부를 것이다. 직접표현은 담화상황 밖의 지시대상, 곧 3인칭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칭대명사들과 구별이 된다.

그 동안 직접표현에 관한 논의는 장석진(1972, 1973, 1974)과 이승녕(1983)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자들에서는 현대국어의 1·2인칭에 해당하는 직접표현들의 예들이 간략히 소개되었다.<sup>2)</sup> 후자에서는 중세 및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小人, 賤妾, 老僕’ 등과 같은 1인칭 표현들이 사용됨으로써 대명사의 공백을 채워준다고 설명하였다.<sup>3)</sup>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1·2인칭 표현들의 특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인칭을 지시하는 직

\* 부산여대 국어과 전임강사

1) Lyons (1977 : 640~646) 참조.

2) 본고에서의 직접표현을 장석진(1974)에서는 ‘代用表現(Non-pronominal person Substitution)’이라 부르고 있다.

3) 이와 같은 용법을 이승녕(1983)에서는 ‘空位의 補填’이라 하였다.

접표현들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에 의해 제야된다는 사실파,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이 또한 2인칭 대명사들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들을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다. 또한 1·2인칭이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사들에 의하여 지시되는 사실들도 본고의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 II. 1인칭 표현들

**2.1** 1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신분관계에 따라 비교적 잘 구분된다. 화자의 신분이 청자와 비슷하거나, 청자보다 높을 때는 ‘나’를, 그렇지 않을 때는 ‘저’를 사용한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친숙한 사이가 아닐 때는 더러 ‘나’ 대신에 ‘여기(이쪽, 이쪽)’라고 하기도 한다.

**2.2** 1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신분상의 높고 낮음만을 지시할 뿐이고, 양자의 구체적인 신분관계를 밝혀 주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앞으로 논의할 1인칭 직접표현들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신분관계로써 1인칭을 표현해 준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체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 한 예로 친족관계에서의 직접표현을 들 수 있다. 가령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을 가리켜 (1)과 같이 말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부모·자녀의 관계((1a)), 조부모·손자의 관계((1b)), 형·아우의 관계((1c)), 삼촌·조카의 관계((1d)) 등이 마련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 (1) a. 엄마〈아빠〉 (좀 나갔다 올께)
- b. 할머니 〈할아버지〉
- c. 언니(형)
- d. 삼촌

사실상 (1)과 같은 1인칭 직접표현들은 청자가 화자 자신에 대해 (1)과 같이 호칭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자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그와 같이 부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화·청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은 앞의 친족관

제 외에도 (ㄱ) 직장 안에서의 상하관계, (ㄴ) 군대에서의 지휘·복종 관계, (ㄷ) 사제의 관계, (ㄹ) 학교나 직장의 선·후배 관계, (ㅁ) 동료 내지는 친구의 관계 등등 다양하게 열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1인칭 직접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몇 개 안 된다. (ㄱ)의 관계에 있어서 가령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을 가리켜 (2)와 같이 말하였다 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 (2) a. ??사장<과장, 계장……>의 생각으로는…….
- b. ??교장<교감, 학장, 총장……>의 생각으로는…….

(2)는 자신의 직위에 따른 권위를 억지로 나타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반하여 (ㄴ), (ㄷ)의 관계에 있어서는 1인칭 직접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3) 자, 다들 대대장<중대장, 소대장……>을 주목해라.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부하들에게)

(4)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자신의 제자들에게)

앞의 (2)와 (1), (3), (4)의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1인칭 직접표현의 성립 조건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전자에서의 화·청자의 관계와 후자에서의 관계는 심리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전자에서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다소 느낄 수밖에 없지만 후자에서는 거의 느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심리적 부담감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는데 있어서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신분상의 준비관계나 친소관계, 연령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생겨난다. 곧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웃사람에게 말할 때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낄 것이고, 신분상 동등하거나 낮은 상대에게 말할 때는 친소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부담감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자의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화자가 청자에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앞의 (1)~(4)의 화·청자 관계들에 있어서의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비교해 보자, (1)의 친족관계나, (3)의 군대에서의 지휘·복종관계, (4)의 사제관계 등은 강한 심리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들이므로, 이때 화자가 웃사람이라면 화자는 청자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말할 수 있다.<sup>4)</sup> 한편 (2)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란, 이익집단 구성원들의 관계이므로 강한 유대감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화자가 비록 상위자라 하더라도 청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전혀 안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가 1인칭 직접표현의 가능여부를 결정해 준다면 1인칭 직접표현의 성립 조건을 굳이 화·청자가 맷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두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가령 어떤 어른이 전혀 모르는 낯선 아이에게 말할 때 (5)와 같이 인칭 직접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거의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5) 아저씨〈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한테 질 좀 가리켜 주련?

화자가 청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거의 느끼지 않을 때는 청자를 ‘너’라고 부를 것이나, 심리적으로 다소 내지는 크게 부담을 가질 때는 ‘자네’나 ‘당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1인칭 직접표현이 가능한 (1), (3), (4), (5)의 관계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너’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2)의 관계에서는 ‘자네’나 ‘당신’이라고 말할 것이다.<sup>6)</sup>

심리적 부담감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에 의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보편적으로는 유대가 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이따금 어떤 화자는 청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사회 단체의 선·후배 관계는 친족 안에서의 형제관계보다 유대가 약할 것이고 따라서

- 
- 4) 親族이라 하더라도 시댁의 형제들과 시집 온 며느리 사이와 같이 피차 어렵게 대하는 사이라면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느껴질 것이고, 이때는 1인칭 직접표현이 쓰이지 않는다.
  - 5) 이런 때 비록 화자와 청자의 사이가 친척관계도 아니라 하더라도 연령상으로는 화자가 청자의 아저씨뻘이나 아줌마뻘이나 할아버지뻘이 될 것이므로 친척관계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선·후배 사이에서 ‘형, 언니’ 등과 같이 부르는 것도 역시 동일한 이치로 설명될 것이다.
  - 6) 2인칭 대명사 ‘너’, ‘자네’, ‘당신’ 등이 화자가 청자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에 따라 쓰인다는 사실은 3.1에서 논의할 것이다.

심리적 부담감도 크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자신을 가리켜 (6)과 같이 말하는 것은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 (6) 형〈언니〉

그렇지만 때때로 어떤 화자들은 (6)과 같은 표현을 거침없이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하려 든다. 또한 선·후배 사이가 친밀해지면 해질수록 (6)이 자연스럽게 들릴 것이다.

청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말을 앞에서 하였는데, 예컨대 父子關係라 하더라도 중년 이상 된 아들보다는 성년 이하의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적을 것이다. 또 사제관계에서도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이하의 제자에게 스승이 심리적으로 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청자가 대학생이라면 교수가 자신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1인칭 직접표현의 두 번째 조건은 화자와 청자가 신분상 상하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동시에 화자가 상위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의 (口)의 관계(친구, 동료관계)에서는 화·청자가 아주 친밀하여 심리적 부담감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7)에서와 같은 1인칭 직접표현을 쓸 수가 없다.

- (7) a. \*철수〈김철수, 김군……〉는 오늘 학교에 안 간다. (철수=화자)
- b. \*김제장〈김선생, ……〉은 오늘 출근 안 하겠다. (김제장=화자)

그것은 1인칭 직접표현들이 ‘관계호칭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호칭어들을 관계호칭어와 일반호칭어로 구별하고자 한다. 관계호칭어란 화자(호칭하는 이)에 대한 청자(호칭을 받는 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써 호칭어를 대신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8a)가 그것인데, 이때 화자와 청자는 반드시 사회적인 수직관계를 맺어야 하는 동시에 화자가 하위자이고 청자가 상위자이어야 한다. 일반호칭어란 화·청자의 관계와는 상관 없이 청자의 직위나 이를 따위로써 호칭하는 말인데 (8b)가 그 예다. 이때는 화·청자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며, 또한 이들의 상하관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 (8) a. 선생님, 아버지, 소대장님, 과장님<sup>7)</sup>  
 b. 철수, 김군, 김소위(님), 김과장(님)

(8a)의 관계호칭어는 관계상의 상위자에 대한 호칭어이므로 존칭의 접미사 ‘님’이 자주 쓰인다. (8b)의 일반호칭어 가운데서 가령 ‘김소위’ 같은 것은 동료나 상급자가, ‘김소위님’은 하급자가 각각 부르는 호칭 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앞의 (7)에서와 같은 1인칭 직접 표현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1인칭 직접표현은 청자가 화자에 대해 관계호칭어로써 호칭함을 전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호칭하는 이가 청자, 호칭 받는 이가 화자임을 전제한다는 말이다. 또한 관계호칭어는 호칭 받는 이가 호칭하는 이보다 상위자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 1인칭 직접표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앞의 (7)의 1인칭 직접표현이 적절치 못한 이유는 (7)의 발화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sup>8)</sup>. 다음의 (9)~(11)의 각 a가 1인칭 직접 표현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 (9) a. \*아들 친구들이 오늘 집에 온대요  
 b. 엄마 친구들이 오늘 집에 온단다.  
 (10) a. \*학생〈제자〉은 어제 몸이 아파 결석했읍니다.  
 b. 선생님은 어제 몸이 아파 못 나왔어.  
 (11) a. \*소대원도 찾아 보겠습니다.  
 b. 소대장도 찾아 보겠다.

7) 친척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화자가 청자를 ‘아저씨, 할아버지, 형’ 등과 같이 부르는 말들도 역시 관계호칭어라고 할 수 있다. 註 5를 참조.

8) 관계호칭어 가운데 동생, 조카 같은 말들은 청자가 아랫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들도 1인칭 직접표현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반드시 화자가 청자보다 웃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인 (b)에서 들은 1인칭 직접표현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만약 (9)~(11)의 1인칭 표현들을 대명사로 바꾼다면 (a)는 ‘저’가, (b)는 ‘나’가 각각 될 것이다.

과거 ‘小人, 老僧, 嬪妻, 寡人’ 등과 같은 자기비하적인 1인칭 표현 습관들은 오늘날의 1인칭 직접표현에도 남아 있다. 1인칭 직접표현은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화자가 상위자이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높여 부르는 법은 없다. 따라서 (12a)나 (12b)는 1인칭 직접표현으로 가능하지만 (12c)는 불가능하다.

- (12) a.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 b. 하래비, 할미, 애비, 에미
- c.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어머니)<sup>9)</sup>

(12c)에는 높임말의 표지인 ‘님’이 들어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1인칭으로 ‘선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표현 습관은 아마도 선생님의 존재를 특별히 우대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인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직접표현과 대명사는 그 지시적 내용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표현적 내용은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인칭 직접표현은 심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청자에게만 사용되는 동시에 청자와의 구체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대명사보다는 더 친근감을 준다.

- (13) a. 엄마 잠깐 나갔다 올께.
- b. 나 잠깐 나갔다 올께.
- (14) a. 철수야,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 b. 철수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9) (12c)의 ‘어머니’는 높임말로 간주되는 것은 요즈음 자주 쓰이는 ‘엄마’보다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점잖은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12a)의 ‘아버지’는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어서 높임말로 인식되지는 않는 듯하다.

2.3. 한편 公的인 모임에서 화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로써 自稱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1인칭 직접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2.2에서 살펴 본 1인칭 직접표현의 여러 제약들과는 무관하게 쓰이는 점이 주목될 만하다,

- (1) a. 지금부터 사회자를 주목하세요.
- b. 지금부터 저를 주목하세요.
- (2) a. 회비는 회계한테 주세요.
- b. 회비는 저한테 주세요.

(1), (2)에서의 직접표현 ‘사회자, 회계’는 대명사 ‘저’ 보다 더 떄때 한 느낌을 준다.

2.4. 우리는 지시사 ‘이’가 1인칭 표현에도 쓰이 는 예들을 자주 본다.

- (1) a. 엄마의 말 좀 듣거라.
- b. 이 엄마의 말 좀 듣거라.
- (2) a. ??철수를 어떻게 보고 그래 ?
- b. 이 철수를 어떻게 보고 그래 ?
- (3) a. \*김과장의 생각으로는……
- b. 이 김과장의 생각으로는……
- (4) a. ??아들만 믿으세요.
- b. 이 아들만 믿으세요.

(1)의 ‘엄마’와 달리 (2)~(4)의 ‘철수, 김과장, 아들’등은 앞의 2.2에서 지적한 1인칭 직접표현의 조건들에 어긋나는 말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이’의 수식을 받을 때 1인칭 표현으로 손색없이 쓰임을 보게 된다.

이상에서 ‘이’는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이’는 청자의 관심을 화자 쪽으로 강하게 끌어들이기만 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지시사들은 원근지시와 한정지시를 통하여 청자의 관심을 지시대상으로 끌리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sup>10)</sup> 원근지시면에서 ‘이’는 화

---

10) Lyons (1977 : 647) 참조.

자지향적이다. 한정지시란 여러 대상들 가운데 지시하는 대상이 어느 것인지 청자가 알 수 있게 한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5b)에서처럼 ‘이’의 피수식어가 이미 한정적 명사구(definite NP)일 때는 ‘이’가 다시 한정지시하지 않고 다만 청자의 관심을 화자 쪽의 지시대상으로 끌리게만 할 뿐이다.

(5) a. 이 책상은 어디로 옮길까?

b. 이∨책상은 어디로 옮길까?

(∨는 休止)

(5a), (5b)의 ‘이’는 모두 화자지향적 지시를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책상을 한정해 주는 일에 있어서는 달리 행동한다. (5a)에서는 여러 개의 책상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한정하여 지시한 반면에 (5b)에서는 발화현장에 하나밖에 없는 책상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후자와 같은 지시를 ‘강조지시’라고 부르기로 한다.<sup>11)</sup> 그것은 (5b)가 (5b')에 비해 청자의 관심을 책상으로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5) b'. 책상은 어디로 옮길까?

앞의 (1b)~(4b)에서도 ‘이’의 피수식어 들은 모두 한정적 명사구들이며, ‘이’는 강조지시를 할 뿐이다. 그런데 1인칭을 강조지시의 ‘이’로 써 지시하는 것은 문장의 내용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들에서는 화자 자신이 특별히 강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조지시 ‘이’에 의한 1인칭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1) c??이 엄마 잠깐 나갔다 올께.<sup>12)</sup>

11) 이들은 休止(pause)의 유무로써도 구별이 된다. (5b)에서는 ‘이’와 ‘책상’ 사이에 休止가 필수적으로 개입하지만 (5a)는 그렇지 않다. 관형어와 피수식명사구사이의 후지 개입 여부는 피수식명사구의 한정성(definiteness) 유무와 관계가 있다. 拙稿(1981: 75~77) 참조.

12) 대조에 의해 강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1c)에 대조의 ‘는’을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들릴 것이다.

(1c)' 이 엄마는 잠깐 나갔다 올께. (너는 집에 있어라.)

- (2) 쟁영수가 이 철수 책을 빌려 가더니 안 가져 온다.  
 (3) 쟁영이군, 오늘 이 김파장파 만나세.  
 (4) 쟁영아빠가 길에서 이 아들을 보셨대요.

한편 ‘사람, 몸, 놈, 년’ 등의 몇몇 명사들이 ‘이’의 수식을 받아 1인칭으로 쓰이는 때가 있다. 이들은 대개 화자가 자신을 낚추어 말하는 데 사용된다. ‘이놈(년)’은 자신을 비속하게 표현한 것이며, ‘이 사람’은 ‘저’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를 표수식 명사들은 한정적(definite)이 아니므로 ‘이’는 강조지시가 아닌 한정지시를 한다. 또한 ‘本人’은 주로 공식석상에서 쓰이는 1인칭 표현이다.

### III. 2인칭 표현들

3. 1 오늘날 주로 쓰이는 2인칭 대명사들로는 ‘너, 자네, 당신’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거기(그쪽, 그편), 뻑’ 등의 말이 더러 쓰인다.<sup>13)</sup> 이들은 1인칭 대명사들보다는 다양한 편이지만 웃사람에 대한 대명사적 표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sup>14)</sup> 신분상 동등하거나 낮은 상대에게 쓰이는 이 대명사들은 무척 복잡한 요인들의 규제를 통하여 선택된다. 이들에 대한 규제 요인들은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 연령 관계, 성별 관계, 친소 관계 등등 다양하다.<sup>15)</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요인들 가운데서 (i)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대명사 규제에 대한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며, 이 밖에도 (ii) 화자와 청자 각각의 연령, (iii) 청자의 성별 등의 요인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sup>16)</sup>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란 앞의 2.2에서도 설명하였다피

13) 이 밖에도 고영근·남기심(1985: 77)에는 ‘그대, 여러분, 노형, 어른(어르신), 귀하, 귀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대, 노형, 귀형, 귀하’ 등은 현재 구어체로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論外로 하고, ‘여러분, 어른(어르신)’ 등은 일단 보류해 두기로 한다.

14) ‘당신’이 때로 기도문에서 존칭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는 특수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15) 장석진(1972: 31) 참조.

16) 고영근(1974: 68), 이익섭(1974: 49) 참조.

화자와 청자의 신분상의 존비판계나 친소판계, 연령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앞의 (i), (ii), (iii)의 요인들이 어떻게 '너, 자네, 당신' 등을 결정해 주는가를 살펴 보자. (I) 우선 청자가 30세 정도 이상의 남자일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sup>17)</sup> 화자와 청자가 허물없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거나, 父子·兄弟의 사이와 같이 아주 가까울 때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sup>18)</sup> 이럴 때는 '너'라는 대명사가 쓰인다. 한편 청자가 친구라 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났거나 그리 친하지 않을 때, 또는 학교·직장에서의 친하지 않은 후배일 때, 아들의 친구일 때 등등과 같이 가깝기는 하되 다소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을 때는 심리적 부담감이 다소 늘게 될 것이고 이때 '자네'라는 말을 쓴다. 다음으로 화자와 청자가 업무상 교류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리 친하지 않을 때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며 이때는 '당신'이라고 말한다.<sup>19)</sup> 이상에처럼 '너, 자네, 당신'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의 크기에 비례하여 쓰이고 있다. (II) 한편 청자가 성년 이상이면서 30세 가량 미만의 남자일 때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일이 별로 없는 듯하다. 이때 '너, 자네'가 쓰이는 조건들은 앞의 경우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의 경우에서보다 청자의 나이가 더 적다는 점 때문에 동일한 화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다소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청자에 대해서도 (I)보다는 (II)에서가 심리적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되어 '자네'라고 말할 수가 있다. (II)의 경우에 '당신'이 쉽게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로써 밝혀진 셈이다.

(III) 청자가 성년 미만의 사람이라면 '자네, 당신' 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때 '너'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쓰인다. 그것은 청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친소판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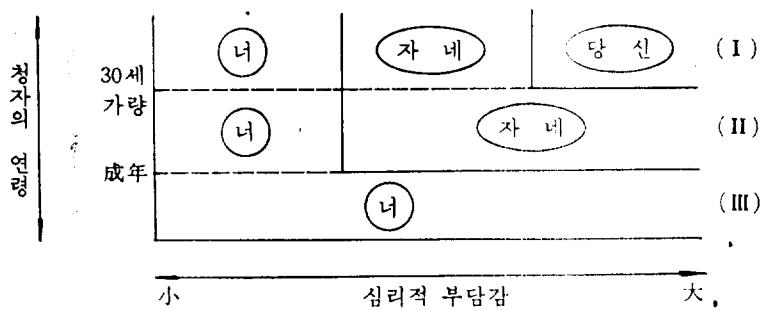
17) 30세가 명확한 기준선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대강 그렇게 잡았을 뿐이다.

18) 물론 이때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거나 동등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19) 부부 사이에서 '당신'이라고 할 때는 경우가 다르다.

상관 없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년 미만의 사람은 남자친 여자친 간에 아이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단, 청자는 남성임)

〈도표 1〉<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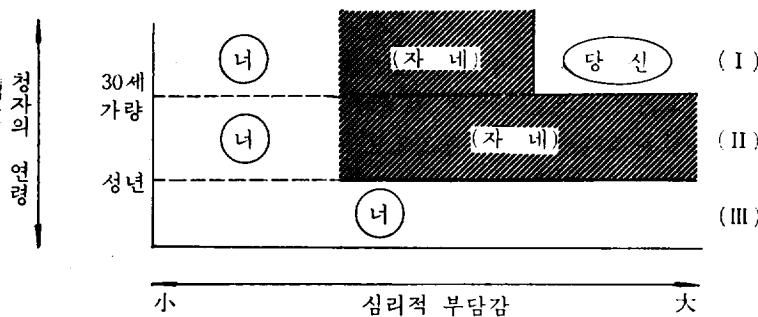
청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좀처럼 ‘자네’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것 같다.<sup>21)</sup> 이때는 ‘자네’ 대신에 청자의 신분을 직접 가리키는 말이나 이름 따위로써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청자가 여자일 경우의 대명사 체계는 ‘자네’의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도표 1>과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기, 떼’은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sup>22)</sup> 이들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단감이 큰 말들이라는 점

20) 화자의 연령이 또한 변수가 된다. 가령 화자가 20, 30 대의 사람이라면 '자네'는 잘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화자의 연령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21) 나이가 많은 며느리들 사이에서나 시누이—울케 사이에서는 ‘자네’를 더러 쓰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자네’가 여성에게도 자연스럽게 쓰인다.

22) ‘거기’ 대신에 ‘그 쪽, 그 편’ 등을 쓰기도 한다. ‘거기, 떡’은 본래 장소를 지시하던 말로서 주격조사로 ‘에서’를 취하기도 한다.



(단, 청자는 여성이며, 빛금 친 부분에서는 '자네'가 안쓰임) <sup>23)</sup>

#### 〈도표 2〉

에서 '당신'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의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들을 갖고 있다. 成年の 전후부터도 쓸 수 있는 '거기'는 '당신'보다 사용자의 연령층의 폭이 넓은 편이며, '택'은 중년 이상의 여성 화자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듯하다.

그러면 이제 2인칭 대명사들과 문장종결어미들과의 호응관계를 살피는 동시에 화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sup>24)</sup> 논의의 편의상 합쇼체를 제외한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들만을 거론할 것이다. <sup>25)</sup>

해라체나 해체는 청자가 화자와 아주 친하거나 나이가 아주 어려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거의 없을 때 쓰인다. 이때는 '너'가 가장 자연스럽고 간혹 '자네', '당신', '거기'가 어울리는 수도 있다.

- (1) 너<?자네, \*당신, \*거기, \*택>가 알아서 해라.

23) 빛금 친 부분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전혀 안 쓰이는 것이 아니다. (II)의 우측 빛금 친 부분에서는 '거기'라는 대명사가 쓰일 것이다.

24) 장석진(1972: 31)에서는 話式(manner of speaking)에 따라 話階(speech level)가 규제되고 인칭대명사형이 정해진다고 한다.

25) 해요체가 젊은 사람에게도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화자와 통등하거나 화자보다 낮은 청자에 대해 쓰이는 것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너〈자네, 당신, ?거기, \*택〉가 알아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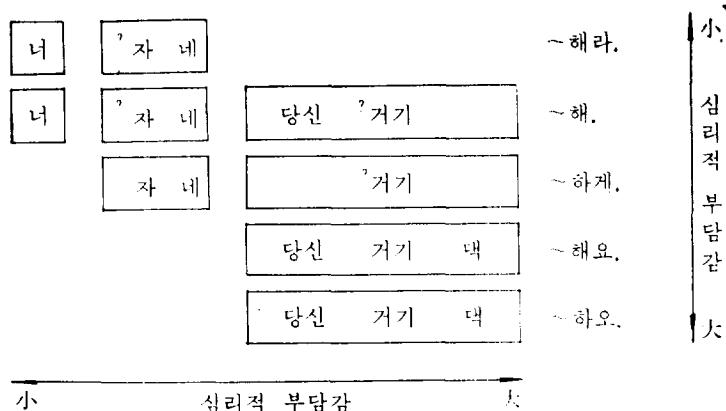
하게체는 청자와 화자가 친밀하면서도 다소 거리를 두는 사이일 때거나, 친밀하지 않더라도 청자의 나이가 20代 정도로서 그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화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쓰인다. 하게체는 ‘자네’와 가장 잘 호응이 되나 때로는 ‘거기’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3) 자네(<\*너, \*당신, ?거기, \*댁>)가 알아서 하게,

또한 하게체는 여자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다.

해요체는 하계체보다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큰 말이다. 해요체가 하계체보다 더 높이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요체와 호응이 되는 말들은 ‘당신, 거기, 떡’들이다.

(4) 당신(\*너, \*자네, 거기, 랙)이 알아서 해요(하세요).



〈도표 3〉<sup>26)</sup>

26) 장석진(1973: 39) 참조.

하오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로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큼을 잘 표현해 준다. 이것은 ‘당신, 거기, 떄’ 등과 호응이 된다.

(5) 당신<\*너, \*자네, 거기, 떄>이 알아서 하시오.

이상에서 우리는 2인칭 대명사들과 문장종결어미들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에 비례해 가면서 서로 호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을 도표로써 정리하면 <도표 3>과 같을 것이다.

<도표 3>에서는 대체로 양자가 심리적 부담감에 비례 호응되고 있으나, 해체와 호응되는 ‘당신’이 예외적인 모습을 띤다. 그런데 ‘당신’이 해체와 어울려 쓰일 때는 특수하게도 상대방에 대한 비호의적 표현이 되고 만다.<sup>27)</sup>

3.2 청자를 표현하는 데는 2인칭 대명사 밖에도 청자의 신분이나 이름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2인칭 직접표현’이라 부르고자 한다.

1인칭과는 달리 2인칭에서는 대명사와 직접표현이 아주 자유롭게 교환되어 쓰인다.

- (1) a. 철수<너>가 알아서 해라.
- b. 김군<자네>이 알아서 하게.
- c. 김제장<당신, 거기>이 알아서 하시오.

물론 직접표현과 대명사들의 표현상의 느낌은 약간 차이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느낌의 차이는 때로 아주 커져서 결국 양자가 상호 교환될 수 없게 될 때도 있다. 가령 화자와 청자가 다소 친밀한 사이일 때 적당한 대명사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 (2) a. 영수아빠<\*너, \*자네, \*당신, ??거기, \*때>가 우리 그이를 좀 만나 주세요. (영수아빠=화자의 남편의 친구)

---

27) 이 밖에 ‘당신’이 기도문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도 특수하게 쓰인다. 앞의 註 14, 19를 참조.

- b. 김 양<\*너, \*자네, \*당신, ??거기, \*액> 집은 어디야?
- c. 이 선생<\*너, \*자네, ??당신, ??거기, \*액> 생각에는 어때요?

‘영수아빠, 김양, 이선생’ 등이 화자와 어느 정도 친숙한 청자라면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는 ‘당신, 거기’ 따위의 대명사들로는 바꿔 쓰지 못한다. 소수의 2인칭 대명사들로써 다양한 화·청자의 관계들을 모두 표현하는 일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또한 청자가 화자보다 웃 사람일 때는 2인칭 직접표현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직접표현보다는 대명사로 써만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화자, 청자의 신분이나 이름을 전혀 모를 때가 바로 이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대강 청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을 짐작하여 ‘아가씨, 총각, 청년, 학생, 선생(님)’ 등등과 같은 직접표현들을 쓰는 일이 많다.

3. 3 대명사는 話示(deixis)를 통해서만 쓰일 수 있는 데 비해서 직접표현은 話示를 통하지 않고도 쓰인다. 가령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특별히 ‘영수’를 가리키지 않고 (1)과 같이 말했다면 이때 청자인 ‘영수’를 ‘너’로 대용할 수는 없다.

(1) 영수가 그 다음을 읽어 보렴.

그려나 ‘영수’를 가리키면서 (1)을 말했다면 이때의 ‘영수’는 ‘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다음의 예문 (2)에서도 ‘영수’를 향하여 말할 때는 (2a)와 (2b)가 동일한 문장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2a)는 (2b)와 다른 문장이 되고 만다.

- (2) a. 너희들 중에서 영수가 형이니?
- b. 너희들 중에서 네가 형이니?

한편 호격에는 대명사보다 직접표현만이 사용된다. 그것은 청자를 부르는 행위가 話示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3) a. 영수야, 지금 밖에 비오니?  
 b. \*너야, 지금 밖에 비오니?

이와는 달리 (4)~(7)에서처럼 청자를 指定하는 경우에는 대명사가 사용된다.

- (4) a. 영수, 집에 가라.  
 b. 너, 집에 가라.  
 (5) a. 영수, 집에 가니?  
 b. 너, 집에 가니?  
 (6) a. 영수, 집에 가자.  
 b. 너, 집에 가자.  
 (7) a. 영수, 친구 찾아 왔다.  
 b. 너, 친구 찾아 왔다.<sup>28)</sup>

이들 문장에서 '영수, 너'가 꼭 필요한 말이 아닌데도 굳이 그것을 쓴 것은 청자를 지정하여 말하기 위함일 것이다.<sup>29)</sup> 話示가 가능한 지정 일 경우에 한해서 2인칭 대명사가 쓰일 수 있음을 앞의 다른 예들에서 와 동일하다.

28) (4)~(7)의 '영수, 너'가 주어가 될 수 없음은 (6), (7)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호격이 될 수도 없다. 가령 (4a), (5a)의 '영수'가 호격이라면 이들은 零形態의 호격조사를 갖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청자가 성인일 때에만 가능하며, 하지체의 문장종결어미와 호응이 된다.

(4a)' 영수φ, 집에 가게.

(5a)' 영수φ, 집에 가나?

(4a)', (5a)'의 '영수' 뒤에는 반드시 짧은 시간의 쉼이 필요하지만 (4a), (5a)의 '영수'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29) (4)~(7)에서와 같은 指定은 문장의 내용이 청자에 관한 것일 때만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은 청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의 지정이 어려워진다.

(i) a \*영수, 비가 온다.

(i) b \*너, 비가 온다.

(ia)의 '영수'는 호격이 아닌 지정을 한 것이다. 호격이라면 (ii)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i) 영수φ, 비가 온다.

지정과 호격의 차이는 註28을 참조.

3.4 우리는 이미 2.4에서 지시사 ‘이’가 1인칭 표현에 사용되는 것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이, 그, 저’가 2인칭을 지시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들은 대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쓰이되, 다음과 같은 특정한 문장형식들을 빌어서 나타난다.

첫째, 지시사 ‘이’가 호격에서 2인칭을 지시하는데, 이때 불리는 대상은 결코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 (1) a. 이 놈<자식, 새끼, 녀석,……>아  
     b. 이 사람<친구, 양반, 여자, ?학생, ?청년, \*이, \*분, \*선생님……>아

(1a)의 ‘놈, 자식……’ 등은 경멸하는 내용의 말들로서 이들은 어느 것이나 다 ‘이’의 주식을 받아 호격이 된다. 그런데 (1b)의 본래 경멸적 내용을 갖지 않는 명사들 가운데는 ‘이’의 주식을 받아 호격이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1b)의 2인칭 표현들은 청자에 대한 우호적 표현이 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나 성품을 경멸하는 표현이 호격의 형식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때도 지시사 ‘이’가 쓰인다.

- (2) 이 암체<바보, 병신, 나쁜 놈, 원수……>아.<sup>30)</sup>

이들은 앞의 (1a)의 호격과는 기능면에서 구별이 된다. (1a)는 청자를 부름으로써 관심을 화자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인 반면에 (2)는 방대방의 행위나 성품에 대한 경멸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 언어행위의 속뜻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a') 이 놈아, 여기를 봐라.  
     (2)' 너는 암체다.

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자의 응답이 뒤따르거나 혹은 화자의 청자에게 향한 발화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

30) 물론 (2)가 호격으로 쓰일 수도 있다.

(i) 이 암체야, 이리 와 봐,

들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2)는 비난이나 체념을 나타내는 감탄사 ‘에이그, 에잇, 예라, 예끼’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3) 예라 이 암체야,

이들 감탄사들이 (1)의 호격어 앞에 놓이게 되면 그들 역시 청자에 대한 부름이 아닌 비난이나 경멸의 표현으로 바뀌고 만다.

- (4) a. 예라 이 놈아.
- b. 예끼 이 사람아.

또한 (2)와 같은 표현들은 호격조사 ‘아(야)’ 없이도 쓰이는데, 이때는 지시사 ‘이’나 ‘저’가 모두 2인칭 지시에 가능하다.

- (5) a. 이 암체〈바보, 병신……〉.
- b. 저 암체〈바보, 병신……〉.

둘째, 상대방을 적대시할 때 ‘이, 저’가 2인칭을 지시하는데, 이때 피수식명사들은 조사 ‘이’나 ‘을’을 빼하고 때로는 ‘보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 (6) a. 이〈저〉 놈〈자식, 새끼, 너석……〉 이(왜 이래?, 까불고 있어?)
- b. 이〈저〉 사람〈친구, 양반, 여자, 학생, 청년, 이, 분?, \*선생님, \*아들, ……〉이?
- (7) a. 이〈저〉 놈〈자식, 새끼, 너석……〉을 그냥(흔내 줄까 보다.……)
- b. 이〈저〉 사람〈친구, 양반, 여자, ?학생, ?청년, 이, \*분, \*선생님, \*아들, ……〉을 그냥,
- (8) a. 이〈저〉 놈〈자식, 새끼, 너석……〉 봐라.
- b. 이〈저〉 사람〈양반, 친구, 여자, 학생, 청년, 이, 분, ??선생님, \*아들, ……〉좀 보기.

(6b)~(8b)의 지시사의 피수식명사들은 본래 친근감이 없거나 존칭이 아닌 말들만이 허용된다. ‘친구’란 말이 일반적으로는 다정한 관계를 지시해 주지만 여기서는 ‘놈’ 정도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이 밖에도 청자를 못마땅하게 여길 때 ‘이, 그, 저’를 통해서 2인칭을 지시하는 예들이 더러 있다.

- (9) a. 그 놈<자식, 새끼, 너석……>참.  
b. 그 사람<친구, 양반, 여자, 학생, 청년, 이, 분, \*선생님, \*아들…>참
- (10) a. 그<이, 저>놈<자식, 새끼, 너석, ……> 말 한 번 잘한다.  
b. 그<이, 저> 사람<친구, 양반, 여자, 학생, 청년, 이, 분, ??선생님, \*아들……> 말(씀) 한 번 잘 하(시)네.

#### N. 결 론

우리는 이상에서 1인칭과 2인칭의 여러 표현 방법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각각 대명사, 직접표현, 그리고 지시사에 의한 표현 등으로 나뉜다.<sup>31)</sup> 필자는 이 가운데서 특히 화자의 청자에 대한 관계로써 표시되는 1인칭 직접표현의 조건들과, 2인칭 대명사들을 규제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관심을 두었다. 앞서 말한 1인칭 직접표현들은 반드시 화자가 청자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동시에 화자가 윗 사람일 경우에만 사용된다. 요즈음 이러한 방법의 1인칭 표현들은 점차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늘날 2인칭 대명사들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존비관계가 아닌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오늘날 인칭표현들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편 지시사들이 1·2인칭을 지시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사들이 1·2인칭을 지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인칭을 지시하는 것은 특수한

31) 이 밖에도 특수한 경우에 ‘남, 자기’가 각각 1인칭과 2인칭을 지시하기도 한다.

(i) 남은 아파 죽겠는데 너는 뭐가 그리 좋으니?  
(ii) 자기가 뭘 잘했다고 그래?

\* 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여자대학 朱尙大 교수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표현을 하고자 할 때문일 것이다. 1인칭에서의 ‘이’가 화자를 특별히 강조하여 지시하는 것이나, 2인칭에서의 ‘이, 그, 저’가 주로 청자를 경멸 내지는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 參 考 文 獻

- 고영근(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金貞娥(1984), “十五世紀 國語의 代名詞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62.
- 서정수(1972), “現代國語의 待遇法 研究”, 어학연구 8—2.
- 성기철(1985), 現代國語의 待遇法 研究, 開文社.
- 안병희(1965), “十五世紀 國語 恭遜法의 한 研究”, 국어국문학 28.
- 이기문(1978), “國語의 人稱代名詞”, 冠嶽語文研究 3.
- 이승녕(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1983), “國語의 人代名詞와 身分性 支配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 第 2輯.
- 이익섭(1974), “國語 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國어학 2.
- 이필영(1981), “現代國語의 關係冠形節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8.
- 張京姬(1980), “指示語 ‘이, 그, 저’의 意味分析”, 어학연구 16—2.
- 장석진(1972), “Deixis 의 生成的 考察”, 어학연구 8—2.
- (1973), “話의 生成的 研究”, 어학연구 9—2(別卷).
- (1974), “보이나 안들리는 「너」와 「나」”, 어학연구 10—2.
- (1985), 話用論 研究, 탑출판사.
- 최현배(1980), 우리말본, 정음사.
- Lyons, J. (1977), Semantics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